

카투사 격주간

1976년 6월 1일 창간

THE KATUSA, A BI-WEEKLY PUBLICATION

2005년 7월 첫 번째 30권 11호

이번 호에는...

2면 군관련 소식

1-2 항공대대 자신보육원 방문
좋은 이웃으로 다가선 풍생고교생들

3면 군관련 소식

302여단지원대대 현충원 방문
한마디

4, 5면 부대 탐방

142 헌병중대



6면 영어교육 연재

Winglish.com

7면 카투사 기고문

자동차의 전통을 이어가는 세단

8면 안녕하세요

하유선



부대 탐방 후보지 신청

카투사지가 부대탐방 후보지를 찾습니다. 부대 탐방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준비하오니 최소 한달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9월 이후 부터 취재할 부대 탐방 후보지를 찾고 있습니다.

부대탐방은 7명 이상의 카투사가 근무하는 부대를 위주로 신청 받고 있으며 관련 부대가 신문에 실린 지 6개월 이후이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부대를 다른 카투사들에게 소개하고 동기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한국군 지원단장 이취임식



카투사 신문 이정우

커리어 필드 하우스에서 이취임식중 기립한 행사 참석자 일동.

지난 27일 용산 미군 기지내 커리어 필드 하우스에서 한국군 지원단장 이취임식 행사가 거행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전 한국군 지원단장 김덕곤 대령의 이임사와 현 한국군 지원단장 이용일 대령의 취임사 및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한기호 소장의 훈시 그리고 미8군 사령관 찰스 캠벨 중장의 축사가 있었다. 김대령은 2002년 4월부터 현재까지 한국군 지원단장으로서 카투사들의 복지와 처우개선 그리고 한미간의 공조를 돈독하게 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캠벨 중장은 김대령이 군생활 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점을 강조하며 "

그는 군생활을 함께한 많은 장교들중 단연 으뜸"이라고 말했다.

"김대령은 리더로서, 스승으로서, 또한 애국자로서 한국군과 미8군,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에 힘입어 카투사들이 이룰 수 있었던 모든 업적들 역시 김대령의 큰 자부심입니다. 그는 병사들이 언제나 최우선이었기에 병사들의 군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난제라도 완수해 내었습니다. 그는 언제라도 전투에 임할 수 있도록 병사들을 훈련시켜왔습니다. 김대령의 지도력과 단결력은 조국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김대령의 업적에 대한 캠벨 중장의 감사의 마음은 본 행사 이전, 미8군 본사 건물에서 있었던 수상식에서도 표현되었다. 캠벨 중장은 이자리에서 "김대령은 5천에 달하는 젊은 애국자, 카투사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한국군 지원단장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내었다"고 말하며 미국방장관 도널드 럼스펠드를 대신하여 '미육군 훈공장(Legion of Merit)'을 수여했다.

김대령이 수상한 미육군 훈공장은 미 의회령에 의해서 1942년 7월 20일에 승인되었고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 전대통령에 의해서 인가된 것으로서 탁월한 공적과 성과를 보여주는 미 군부대 임원이나 우방군의 임원에게 수여된다. 김대령은 한국군 지원단장으로서 한국군과 미군을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였고 그의 지휘하에 있는 카투사들을 훌륭하게 키워내었다는 점에서 이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이 수상식은 김대령뿐만 아니라 그의 처, 김승숙 여사의 노력 또한 기리기 위한 자리였다. 김대령의 부인 김승숙 여사 역시 캠벨 중장으로부터 '구원의 손길상(Helping Hand Award)'을 수상하였다. 이 상은 미8군과 카투사들을 위해서 헌신적인 지원을 보낸 그녀의 노력에 대한 보답이다. 상을 수여하며 캠벨 중장은 "그녀의 헌신적인 지원은 앞으로 영속될 한미간의 동맹의 유대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또 다른 힘"이라고 강조했다. 캠벨 중장의 부인 다이애나 캠벨 여사 역시 '미8군 장교 부인회'를 대표하여

2면으로 계속...

카투사 예비역들의 주특기 교육



카투사 신문 최의진

카투사 예비역들이 과림 훈련장 강당에서 주특기 교육을 받고 있다.

지난 8일 52사단 215연대에 위치한 과림 훈련장에서 실시한 동원 미참가자 훈련(이하 동미참 훈련) 중 한국군 지원단에서 실시한 카투사 예비역들을

위한 주특기 교육이 있었다.

이날 교육은 2박 3일간의 동미참 훈련의 마지막 일정으로 전역 후 통역을 주특기로 가지게 되는 카투사 예

비역들에게 전시에 필요한 여러 군 지식들을 교육하는 시간이었다.

총 8개 교시로 이루어진 주특기 교육은 한국군 지원단본부 정보작전과장 하성우 소령의 한국군 지원단 및 미8군에 대한 소개로 시작되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제8인사행정사령부, 17항공여단 등의 부대 개편으로 인해 크게 변모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부대 상황 및 전시에 카투사 예비역들이 취해야 할 행동절차 등의 설명이 이어졌다. 이어서 미8군 작전참모부 1군단 연락장교 그레고리 비지아노 소령의 미1군단, 18공정군단의 간단한 소개가 있었고, 미8군 작전참모부 소속 다니엘 에이들 상사의 군사영어 교육, 한국군 지원단본부 정훈장교 이준범 중위의 한미 군사동맹의 필요성에 대한 강연이 뒤따랐다.

상병 최의진

한국군 지원단장 이취임식

1면에 이어서...

김승숙 여사에게 감사의 선물을 증정했다. 캠프 여사는 "종전에 잘 알지 못했던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준 점에 감사드린다"며 김승숙 여사가 떠나는 것에 아쉬움을 표현했다.

새롭게 취임한 이용일 대령은 취임사에서 "30여 년간의 군 생활을 명예롭게 마치고, 전역하는 김덕곤 대령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말하며 한국군 지원단장으로 취임하게 된 첫 소감을 표현했다. "저는 50여 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카투사 제도를 총괄하는 미 8군 한국군지원단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그 책임의 막중함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이대령은 취임사에서 카투사들의 '군사 외교관으로서의 가치', '한미 양국 친선관계 및 상호 지원 상징의 가치'들을 높이 샀다. 그는 미군에게 한국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한편 한미 군사력 공조의 첨단에

서 자신의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카투사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다음과 같이 취임 한국군지원단장으로서의 각오를 다졌다.

"비록 저에게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있겠지만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미8군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며, 여러분들이 카투사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일병 이정우

1-2 항공대대 자신보육원 방문

6월 2일 미 2사단 항공여단 1대대원들은 부대 인근의 '자신보육원'을 방문하여 부대인근 사회단체와 교류 및 봉사의 시간을 가졌다.

그 동안 항공 1대대는 부대인근 사회복지 단체 및 교육기관들과 꾸준히 교류하며, 지역사회에 이바지 해왔다. 하지만 지난 3월 미군 재배치로 인해 춘천 캠프 페이지에서 캠프 이글로 기지를 옮긴 후, 춘천에서 정기적으로 방문하던 '애민원' 및 교육시설을 더 이상 방문할 수 없게 되었다. 대대원들은 원주 인근에 새로이 방문할 만한 사회복지시설을 알아보던 중, 마침 부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자신 보육원'이라는 교아원을 소개받게 되었다.

자신원은 8명의 교사들과 47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고, 건물 내에는 4인1실의 숙소, 도서실, 컴퓨터실, 및 식당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밴드부, 국악부, 태권도부 등의 원내 동아리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5월에 새로 취임한 항공 1대대장 구스타보 블럼 중령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부인 브림 여사를 비롯한 미군 및 카투사 장병 15명이 자신원 방문에 참여하였다. 이번 방문에서 대대원들은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미군의 지도 및 카투사의 통역아래 그룹별 영어회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한 시간 가량 진행된 영어교육에서 아이들은 처음 보는 미군과 카투사들을 낯설어 하지 않고, 함께 동화책도 읽고 영어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비록 첫 방문이라서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차후 좀 더 세부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대대원들은 노력할 것이다.



제공사진

자신원을 방문하여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대대원들.

자신보육원 밴드부의 공연 감상과 각종 레크리에이션을 마지막으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대대원들은 2시간여의 방문을 마치고 발걸음을 부대로 향하였다.

2사단 1대대 군중병 신우진 병장은 "약 두 시간의 활동을 마치고 떠나는 순간 많은 아이들이 아쉬워하며 미군과 카투사들에게 매달리는 모습이 가슴 뭉클한 장면이었다"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우리의 방문이 그 아이들의 소망과 꿈을 이루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했다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미2사단 1-2 항공대대 병장 권민

카투사 신문은 미 육군 규정 360-1에 의해 미8군 사령부 공보실에서 발행되는 한글판 비관변 미국방성 공인 신문으로, 1회 4,000부씩 월 2회 발행되고 있다. 이 신문은 전국의 미 육군 배속 한국군과 주한미군 요원들에게 배부되며 여기에 게재된 견해와 의견은 미국 정부, 국방성, 육군성, 미8군이나 대한민국 육군의 그것은 아니다. 카투사 신문은 격주간지로서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에 발행된다. 사무실은 용산 미8군 부대내 S2372이며 전화번호는 723-4872이다. 모든 글은 용산구 체신청 직영 우체국 사서함 59호 미8군 본부중대 공보실로 보내면 된다. 전자우편 주소는 do.ho.kim@usfk.korea.army.mil이다.

- 미8군 사령관
- 중장 찰스 씨 캠프
- 한국군지원단장
- 대령 이용일
- 미8군 공보실장
- 중령 토마스 이 버지나
- 한국군지원단 정훈과장
- 중위 이준범
- 편집장
- 상병 김도호
- 기자
- 상병 최의진
- 일병 심영석
- 일병 이정우
- 이병 박지용



- Eighth U.S. Army Commander
- Lt. Gen. Charles C. Campbell
-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r
- Lt. Col. Thomas E. Budzyna
- Command Information OIC
- Capt. Kone C. Faulkner
- Editor
- Cpl. Kim, Do-ho
- Staff Writers
- Cpl. Choi, Eui-jin
- Pfc. Shim, Yung-sik
- Pfc. Lee, Jung-woo
- Pv2. Park, Ji-yong

KATUSA is an unofficial publication authorized by AR 360-1. Editorial content is prepared, edited and provided by the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 APO AP 96205-0010. Contents of KATUSA are not necessarily the official views of, or endorsed by, the U.S. Government, Department of Defence, Department of the Army, Eighth U.S. Army, or Republic of Korea Army. KATUSA is an offset publication, printed twice monthly by the Document Automation and Production Service. 4,000 copies are distributed on the 1st and 3rd week of each month. Editorial staff is located in Bldg. S2372, Yongsan Garrison, Seoul, Korea. Office telephone numbers are 723-4872. Items submitted for publications consideration should be sent to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 Command Information Division, ATTN: KATUSA NEWS, APO AP 96205-0010. Or use our email address: do.ho.kim@usfk.korea.army.mil. We reserve the right to edit items for brevity, clarity, and news style. Letters to the editor are accepted but must be signed. Names will be withheld by request.

좋은 이웃으로 다가선 풍생 고교생들



카투사 신문 심영석

한미연합사령부 앞에서 기념 촬영하는 라포트 대장, 풍생 고교생들 및 참가자들.

7월 6일, 용산에 위치한 캠프 김의 미 육군 봉사회에서는 '좋은 이웃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생 초청 행사를 마련하였다.

'좋은 이웃 프로그램'은 주한미군의 좋은 이미지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많은 한국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함께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친분을 쌓는 계기가 되어왔다. 이날 행사에는 성남 풍생 고등학교 학생들이 참가하여 친교의 시간을 보냈다.

간단한 미군들의 소개와 점심 식사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볼링과 농구 등 다양한 활동으로 이어졌다. 처음에는 서먹서먹하고 말도 잘 못하던 학생들은 미군들의 재치와 재미있는 행동에 호감을 보이며 점차 서로 웃으며 함께 이야기

카투사 신문은 여러분을 위한 공간입니다

카투사 신문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대 내의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해 알려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관련 소식 외에도, 전국의 모든 카투사들과 공유하고 싶은 멋진 추억이나 아름다운 이야기, 전하고 싶은 글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전화: DSN 723-4872

E-mail: do.ho.kim@usfk.korea.army.mil

302 여단지원대대 현충원 방문

하였다. 이 날은 특히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사령관 리온 라포트 대장이 직접 환영 인사를 하였다. 라포트 대장은 부대에 온 한국의 학생들을 반기며 단체 사진을 찍고 미군들과 봉사자들을 격려 하였다.

행사 참가자 일행은 메인포스트에 위치한 불링장에서 불링을 한 후, 용산 기지에 위치한 서울 미국인 고등학교에 들러 그곳 시설도 보고 체육관에서 농구도 하였다. 201 통신 중대의 제이슨 오웬스 상병은 "정말 뜻깊은 행사이다. 미군들의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다"며, "학생들이 열정적이고, 긍정적이며, 착하다. 게다가 어떻게라도 영어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모습이 참 좋았다"고 학생들에 대한 깊은 인상을 표했다. 모든 일과가 끝난후 봉사자들과 아쉬운 이별을 하며 풍생고등학교 1학년 조정현 군은 말하였다.

"처음에는 미군이라고 해서 부정적인 인식도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함께 지내고 나니 좋은 점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 만나는 것이라 보니 준비도 덜 되었고 어색한 점들도 많았지만 이야기를 나눌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기회가 된다면 좀더 잘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병 심영식



제공사진

호국 영령들의 관등성명이 새겨진 묘비 앞에서 헌화하는 카투사들.

조국의 광복과 자유, 그리고 번영을 위하여 고귀한 생명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잠들어 있는 민족의 성역 국립묘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6월 22일 302 여단지원대대(Brigade Support Battalion)는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국립현충원을 방문하였다. 302여단지원대대에서 39명, 사단보충대(WRC)와 509인사지원대대에서도 각각 5명과 10명의 카투사 병사가 참여하였다. 지원대장 김형

준 상사는 "이번 국립현충원 방문은, 단지 과거의 역사를 공부하거나 순국 선열들에 대한 참배를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직접 수많은 호국 영령들의 묘비를 보며 이분들의 조국애를 직접 가슴으로 느끼기 위함이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외침이 있어왔던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역사는 단지 추억이 아니며 반복된다'는 진리를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고 행사의 의의를 밝혔다.

국립현충원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개방한다. 직접 현충탑에 참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진전시관과 유물 전시관도 운영되고 있어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숨결을 생생히 느낄 수 있다.

일행은 전시관을 둘러보고, 현충탑으로 가서 직접 참배를 하였다. 군복을 입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에게 참배를 하는 카투사 병사들의 얼굴에는 진지함이 묻어나고 있었다. 302여단지원대대 본부중대의 황태운 병장은 "현충원에 처음 와보았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가 먼저 간 수 많은 애국선열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졌음을 느꼈다. 이곳을 둘러보면서, 앞으로 남은 군생활 기간 동안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열심히 생활하겠다고 다짐했다"고 느낀 바를 전했다. 이번 현충원 방문에는 막 군생활을 시작한 302여단지원대대 C중대 서강원 이병도 참여했다. 그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내던진 분들을 보면서, 내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렇게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았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군생활을 하겠다"고 말했다.

2사단 공보실 병장 김진석

카투사 한마디

장마철에 관한 추억



142헌병중대 2소대
병장 강윤식

저희 중대는 훈련이 많은 편인데다 만만한 훈련이 하나 없습니다. 그나마 장마철에는 비가 많이 오면 훈련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 기대를 하게 만듭니다. 지난해 장마철때도 소대훈련을 하는데, 아침부터 비가 무척 많이 내려 훈련이 취소 될 줄 알았는데 결국은 비를 맞으면서 훈련을 했었습니다.



142헌병중대 본부소대
병장 구충성

군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일 많이 겪었지만 작년 습하고 더웠던 장마철때 방탄복과 무거운 MP 기어를 차고 군복이 땀과 비에 젖은채로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도보 순찰을 했던 기억이 가장 많이 남습니다.



142헌병중대 본부소대
상병 김시현

저는 훈련소에서 가장 고되고 힘든 훈련인 야간행군을 태풍과 함께 했습니다. 태어나서 그토록 비를 많이, 그리고 오래 맞았던 적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으리라 믿고 싶습니다. 물로 가득찬 군화와 한치 앞도 보지 못하게 했던 그 당시의 굵은 빗줄기가 가장 기억에 납니다.



142헌병중대 3소대
일병 강연호

우리 중대는 헌병이니 만큼 외부 근무가 많고 많은 사람들을 접하다 보니 군화나 군복과 같은 외적인 모습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근무 전에 군화 군복 검사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카투사들이 군복에 많은 양의 다리미 풀을 사용하게 되는데 장마철이 되면 으레 비를 맞게 되고 비를 맞으면 군복의 풀이 녹아 내려 온몸이 끈적끈적하게 되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142 헌병 중대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것은 여러가지 상황을 가능하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들은 잘 모르는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그만큼 예기치 못할 일들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언제나 좋은 일들만은 아니라는 점에서 비롯된다. 이것이 많은 구성원의 수만큼이나 많은 범법행위들도 존재하는 이유이다. 우리들이 2년 동안 생활하게 될 부대도 사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국적과 인종을 초월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생활하는 곳기에 범법행위들이 일어날 확률은 더욱 높다. 그렇기에 정의를 지키는 자들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몫을 착실히 수행하는 제 8헌병여단 142 중대 카투사들을 이번 부대탐방에서 만나보았다.

헌병이라 하면 대다수의 카투사들은 'MP'라고 쓰인 완장을 제일 먼저 떠올린다. 그들의 트레이드마크인 'M-9 권총'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이렇게 완장과 무전기, 수갑, 권총 그리고 예비탄창까지, 보기만 해도 위압감이 드는 장비들을 착용한 채 게이트 근무를 서거나 순찰을 돌고 있는 그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그들이 뿜어내는 분위기에 압도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느껴지는 딱딱함과는 달리 우리들의 안전과 질서 수호를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는 따뜻한 회색정신의 소유자들이다.

1944년 12월 20일, 미국에서 142 헌병 경호중대로 창설된 8헌병여단 142 헌병중대는 창설되던 해부터 3년 동안 필리핀에서 경찰부대로 임무를 수행했고 한국전쟁 발발당시에는 한국에서 헌병중대로 2년간 활약했으며 종전 후에는 주독 헌병중대가 되는 등 세계적인 범위에서 왕성한 활동을 해왔다. 142 헌병중대는 1985년 8월을 기점으로 용산 미8군 본부 전투지원 헌병중대로 재편성 되어 현재 위치에 자리 잡게 되었으며 1996년 8월, 94헌병대대 예하로 재편되어 크게 본부소대, 그리고 1, 2, 3, 4 소대로 구성된다. 각 소대는 일반적으로 11~12명의 사병들로 구성되며 3명의 사병이 하나의 분대로 분류되어 소대당 알파, 브라보, 찰리, 델타로 명명되는 3~4개의 분대가 존재한다. 소대를 분대로 구분하는 이유는 실전에서 헌병 병력들이

험비를 운전하는 전투병으로 그 성격이 바뀌어 투입되기 때문이다. 한 분대의 구성단위인 3인의 사병들은 험비를 운전하는 드라이버, 터렛에서 총을 쏘는 거너, 마지막으로 이들 둘을 조율하는 팀리더의 임무를 서로 분담하여 맡는다.



제공사진

대다수의 사람들이 '헌병들의 근무'라면 독특한 24시간 근무대기체제를 떠올린다. 언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헌병들은 언제나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근무시간을 '데이', '스윙', '미드'라고 불리는 세 가지 시간대로 분류하여 한 시간대의 근무를 마친 후 교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데이 근무는 오전 7시에 시작하여 오후 3시에 끝나고 스윙 근무는 바로 이어지는 오후 3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마지막으로 미드 근무는 오후 11시에서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계속된다. 어느 근무시간대에 근무를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그들은 근무 시작시간 1시간 30분 전에 기상을 한다. 그 후 세안, 양치 등을 위한 간단한 개인위생 정비 시간을 가지고 전날 근무시간이 끝난 후 반납했던 권총, 무전기, 수갑 등의 개인장비를 다시 지급 받는다. 장비들을 장착한 후에는 헌병 특유의 가드 마운트(Guard Mount)라 불리는 점검을 받게 되는데 이 점검에서는 군화에는 광이 잘 나는지, 군복은 깔끔하게 다려져있는지의 여부까지 평가하게 된다. 이는 타인들을 규제해야하는 위치에 있는 헌병으로서 항상 절제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듯 완벽한 준비가 끝나면 그들은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142 헌병 중대의 업무는 크게 근무헌병업무와 패스와 신분증 발급 업무로 나뉜다. 근무헌병들은 1, 2, 3 소대에 소속되어 전반적으로 순찰과 감시, 보안시설 점검 및 유지 등의 업무를 맡는다. 반면에 4 소대 소속 헌병들은 패스와 신분증 발급 관련이라는 분류명에서 알 수 있듯이 게이트 1번에서 상주하며, 부대안으로 출입하기를 원하는 외부인들과 외부차량들을 인가하는 작업을 한다. 신분증을 분실했을 때 재발급 해주는 일을 하는 헌병들도 바로 이들이다.

근무 헌병들의 구체적인 업무들은 레드사이클, 그린사이클 그리고 앰버사이클이라 불리는

세 개의 사이클내에서 이루어진다. 레드사이클은 헌병의 일상적 업무인 순찰과 감시를 하는 사이클인 반면, 그린사이클은 중대원 전체가 야전 훈련을 가는 것이다. 앰버사이클은 두 사이클 동안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한 휴식의 사이클이며 업무에 필요한 클래스들은 이 사이클 동안 수료한다. 원칙적으로 이 사이클들은 6주에 한번씩 돌아가게 되어있으나 상황에 따라서 변동되기도 한다.

"아시다시피 헌병의 업무는 근무시간과 휴식시간이 일정하지 않다"고 말한 8헌병여단 142 중대 2소대 소속 강윤식 병장은 헌병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지만 매주 2회의 휴식이 보장되는 다른 카투사들을 보면 약간 부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헌병들은 하루 근무에 투입되는 인원들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 예정 인원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빠지면 그 공석을 메우기 위해서 누군가 대신 투입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 인원이 12명인 헌병 소대에 하루 업무 투입 인원이 6명이라고 가정해봅시다. 만약 한명이 아파서 막사에서 쉬어야한다면 빠진 한명의 공석을 메우기 위해서 전날 근무했던 사람 중에 한명이 다음날에도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8헌병여단 142 중대 3소대 소속 강연호 일병도 다음과 같이 말하며 강병장의 의견에 동의했다.

"이렇기 때문에 주 5일 업무, 2회 휴식은 고사하고 2주 동안 연속 근무한 후에 3일 휴식을 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한 달 연속 근무한 후에 하루 쉬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있으니 웬만해서는 소대원들이 휴가를 받거나 의무실을 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자신을 대신해서 투입 되어야 하는걸 알기 때문에 전우에게 미안하기 때문입니다."

"헌병의 업무가 이처럼 쉽지만은 않지만 헌병이기에 얻을 수 있는 자부심 또한 크다"고 8헌병여단 142 중대 본부소대 소속 구충성 병장은 강조했다. "작년에 미합중국 대통령 조지 부시가 방한을 하여 용산 기지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바로 저희 중대원들이 그의 경호를 담당했었습니다.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 아



제공사진



제공사진



제공사진

닐 수 없습니다." 8헌병여단 142중대 3소대 소속 원정환 병장도 다음과 같이 말하며 근 2년의 군생활 동안 느낀 자부심을 표현했다. "헌병은 물론 힘든 보직입니다. 하지만 헌병으로 일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누군가의 안전을 지키고 그리고 정의를 수호한다는 것만으로도 뜻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것들보다 의미있는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헌병이 된다는 것은 보람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경험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일들을 많이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8헌병여단 142중대 3소대 소속 강연호 일병은 언급했다. "헌병들이 'M-9' 권총을 허리에 차고 근무하는 것은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사용하는 총은 그것이 전부 아닙니다. 저희들은 훈련에서 대략 6개에서 7개의 다른 종류의 총들을 사용합니다." 강일병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그가 신병 시절 경험했던 황당한 일을 털어놓아 모두를 웃게 만들었다. "제 2 육군훈련소에서 5 주간의 훈련 이후에 병과 배치를 받지 않습니까? 그 중에 박격포 병과가 있습니다. 박격포 병과를 받은 장병들 중에 소수의 몇 명은 다시 고속 유탄 사수가 되어서 K-4라는 유탄 발사기를 다루게 됩니다. 마크19와 거의 흡사한 무기이지요. 주위에서 친구들이 그 병과를 받으면 군복무 기간 동안 무거운 유탄 발사기를 들고 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해서 카투사로 온 것을 내심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는 차에 자대 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대에서 선임분들이 애지중지 마크19 자동 유탄 발사기를 닦고 계신 모습을 보니 당황스러운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8헌병여단 142중대 3소대의 원병장도 타운 패트rollers 하면서 겪었던 재미난 일들을 회상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말이 되면 대다수의 카투사들은 부대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잘 모르실 텐데, 이태원 부근

클럽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 납니다. 심각한 일들이 대부분이지만 재미난 일도 많습니다. 평상시에 12시인 통금시간이 주말이 되면 1시로 늦춰집니다. 자연스레 늦춰진 통금에 방심하는 미군들이 한 둘씩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클럽에서 술에 만취하여 난동을 부리곤 합니다. 하루는 통금 이후 타운 패트roller 들린 클럽에서 외국인 하나가 저희들을 발견하고 슬그머니 화장실 쪽으로 도망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번에 미군

임을 직감하고 뒤 쫓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같이 타운 패트roller를 나가는 한국 의경 세 명과 체 동료 카투사 둘 그리고 미군 셋이 한밤에 범법자를 쫓아서 새벽 이태원 거리를 500미터 가까이 질주했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것 역시 헌병이기에 겪을 수 있었던 재미난 에피소드가 아닌가 합니다."

142 헌병 중대 소속 장병들은 앞서 말했듯이 순찰 및 치안유지를 위한 근무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야전 훈련 역시 활발하게 참가한다. 하지만 그들이 참가하는 훈련은 한미연합 전시증원훈련(RSO&I)이나 울지 포커스 렌즈(UFL)같은 훈련과 달리 독자적인 성격을 가진다. 이는 헌병 중대 소속 장병들이 전시에는 전투 요원으로서 활약하게 된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그래서 142헌병 중대원들이 참가하는 훈련들은 기초사격훈련(Basic Gunnery)과 실탄사용훈련(LFX: Live fire exercise), 중대 외부 평가(EXEVAL), 그리고 대도시 시가전(MOUT Training)을 포함한 기타 훈련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초사격 훈련은 앞서 말했듯 수많은 종류의 총을 사용하는 142 헌병 중대 장병들이 과연 얼마나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총기류를 사용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훈련으로서 일종의 사격 시험이다. 속칭 '람보총'이라 불리는 M-249부터 산탄총에 이르기까지의 개인화기 사격능력은 물론 험비에 장착된 마크 19 고속 유탄 발사기의 사격 연습도 기초사격훈련에 포함된다. 마크 19 고속 유탄 발사기의 사격시험은 상당히 인상적인데 거너와 드라이버, 팀리더가 험비에 승차 해 있으면 탱크모양의 과녁이 험비 부근을 지나가게 되고 이를 쏘아서 맞추는 전자동 방식이다. 중대원들은 "험비를 타고 중요한 물품을 호송하는 도중에 적의 공격을 받는다"는 시나리오 아래에서 대처방법을 훈

련하기도 한다. 이는 실탄사용훈련에서 행해지는데, 이 훈련은 가상의 적을 산에 매복시켜두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야군을 두 팀으로 분류하여 A팀이 적의 측면을 공격해서 집중력을 떨어뜨린 동안 B팀이 적을 섬멸한다는 내용의 각개전투훈련과 유사한 시나리오를 가진 훈련도 포함한다. 중대 외부 평가는 중대 규모의 훈련이다. 인근 부대에서 중대규모의 병력이 적군의 역할을 하면서 142 헌병중대의 훈련을 도와준다. 142헌병 중대원들은 3박4일의 훈련기간 동안 특정지역에서 실제 전투와 같이 주둔지를 정비하고 경계를 서며 훈련을 한다. 폭도 진압 훈련과 시가전 훈련 또한 마찬가지로 특정 시나리오 하에서 시행된다.

앞서 말한 것처럼 142 헌병 중대 소속 장병들의 훈련은 힘들고 거칠지만 훈련이 끝난 후 얻을 수 있는 뿌듯함은 무엇보다도 크다. "훈련 기간은 정말 힘든 시간이다"라고 첫 소감을 말한 8헌병여단 142 헌병 중대 3소대 소속 강연호 일병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며 훈련이 결코 호락호락 하지는 않지만 무언가 얻어가는 것은 반드시 있다고 말했다. "텔레비전 외화 '밴드 오브 브라더스'를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그 외화에서는 주인공들이 전시에 물이 모자라 수통 뚜껑에 물을



제공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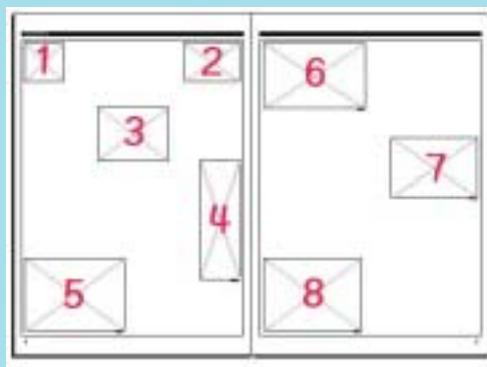
조금만 받아 면도를 하고 세수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 텔레비전에서 볼 때는 별 공감을 하지 못했는데 실제로 직접 경험하고 나니 극한의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142 헌병 중대 소속 장병들은 오늘도 우리 곁에서 안전을 위한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그들의 '정의의 9mm'는 강인한 헌병의 정신과 함께 옳은 일에 언제나 앞장 설 것이다. 상대적으로 힘든 군생활에도 불구하고 "헌병으로 온 것이 자랑스럽다"는 말을 연발하는 그들. 그들이 준 깊은 감동은 앞으로 필자의 군생활을 다시금 채찍질 하는 계기가 되었다. ■

일병 이정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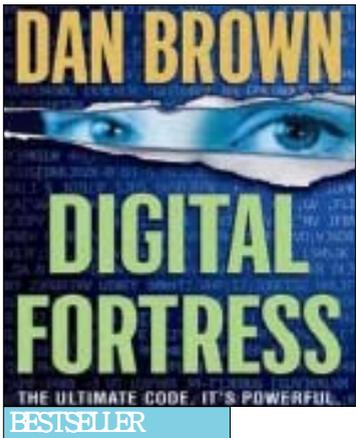


제공사진



1. 군용건 시범 모습.
2. 의정부의 다목적 시가지 전투장에서 MOUT training 훈련중.
3. 소대훈련중 소대진지를 구축하기 위해 LSS를 설치하는 142헌병 중대원.
4. 군용건(K-9) 시범을 보이는 중대원들.
5. 스토리 사격장에서 MK-19를 사격중인 유경훈 일병과 타겟을 설정해주고 있는 심현철 상병.

6. convoy 미션으로 워리어 베이스에서 스토리 사격장으로 이동중인 험비대열.
7. 팀의 GUNNER 포지션에 있는 일병 티모시 올슨.
8. 로드리게즈 다목적 사격장에서 훈련장비를 점검하는 142헌병중대원들.



디지털 포트리스

댄 브라운 / 베텔스만 코리아

이 작품은 1998년에 출간된 댄 브라운의 첫 책으로 미국 국가 안보국의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을 풀기 위해 벌어지는 두뇌게임을 다룬 소설이다. 다 빈치 코드와 천사와 악마에서 보여준 작가 특유의 상상력과 치밀함을 이번 작품에서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댄 브라운의 소설적 상상력과 그 파장이 어디까지 인지를 느끼게 해주는 소설이다.



WEBSITE

레이소다

www.raysoda.com

디지털 카메라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서 이른바 '디카족'들은 즐거운 비명을 내지르고 있다. 예전의 어려운 예술로서의 사진이 아니라 우리곁에 하나의 트렌드로서 자리매김한 사진. 웹사이트 '레이소다'에서는 전문가의 수준에 달하는 멋진 사진들을 감상할 수 있다. 사진들을 소재, 촬영 렌즈 등 여러가지 카테고리별로 분류하여 감상을 용이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웹사이트의 큰 장점중 하나이다.

Winglish.Com 과 함께하는
English Biz - Whiz

제 11장

1. 원글리시에 있는 모든 분의 행운을 빌어 드립니다.

해설) 우선 여기서 '~ 회사에 근무하는 모든 분 (우리 모두가)'이란 표현을 꼭 익히세요. 이럴 때는 all of us at ~ 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IBM 사에 근무하는 우리 모두'라고 할 때는 all of us at IBM 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요. 그리고 '행운을 빌어 드립니다'라는 표현은 간단히 best wishes from ~ 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요. from 이 붙는 이유는 '행운을 ~가 빌어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 Best wishes from all of us at Winglish.

2. 이 선생님, 연 매출 기록 갱신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해설) '~ 기록을 갱신하다'는 동사 surpass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을 축하하다'라고 할 때는 congratulations on ~ ing 를 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축하'라는 의미로는 congratulations 이라고 '복수형'을 쓰고 '~한 사실에 축하하다'라는 의미는 congratulations 뒤에 일반적으로 전치사 on 을 붙인다는 겁니다. 물론 이 전치사 on 은 '~에 관해서'라는 의미지요.

: Mr. Lee! Congratulations on surpassing your annual sales volume record.

3. 귀하와 영업직원 모두가 지난 분기의 판매수치를 돌파한 것에 축하를 드립니다.

해설) '~한 사실에 축하를 하다'라고 할 때는 congratulations on ~ 이라고 하지만, '~에게 축하의 인사를 하다'라고 할 때는 congratulations to ~ 처럼 전치사 to 를 씁니다. '영업사원'에 가장 자연스러운 business 식 용어는 sales representatives 입니다. '지난 분기의 판매수치'는 last quarter's sales level 이라고 하면 됩니다.

: My congratulations to you and your sales representatives for having surpassed last quarter's sales level.

4. 존, 승진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모두는 기뻐했습니다.

해설) '~해서 우리 모두가 기뻐하다'라고 할 때는 we were happy to ~ 라고 할 수도 있지만 business English 에선 we were delighted to ~ 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고급스럽죠. 그리고 '~한 소식을 듣고'라는 표현은 '~을 알다'라는 의미의 동사 learn 을 쓰면 자연스럽게요.

: John, we were delighted to

learn of your promotion.

5. 뉴팜 사의 이사로 임명 되신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해설) '한명의 이사회 임원'은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라고 하죠. 그리고 '진심으로'라는 표현은 sincerest 즉, sincere 의 최상급을 쓰면 상당히 정중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명'은 appointment 를 씁니다.

: I am offering you my sincerest congratulations on your appointment a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New Firm Inc.

6. 린다, 지역 영업소장으로 승진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축하 드리고 행운을 빕니다.

해설) '영업소장'은 regional sales manager 라고 하죠.

: Linda, I just heard the good news about your promotion to regional sales manager- Congratulations and best wishes!

회사 소개하기

외국 바이어 또는 관계자에게 자신 있게 회사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회사소개에 필요한 문장을 함께 영작해 봅시다.

1. 여러분, 저희 회사의 개요에 대해 듣기를 원하실 줄 압니다.

2. 오늘 아침 저희 회사와 제품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3. 박 선생님 그리고 사모님, 팸플릿을 봐 주시겠습니까?

4.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인 안내서를 봐 주십시오. 자세한 비즈니스 사항들을 알 수 있습니다.

5. 회사의 조직 제도에 관한 도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6. 저희 제품에 관한 안내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7. 점심식사 후, 계속해서 저희 회사 제품에 대해 더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Possible translations)

1. Ladies and gentlemen, you may be interested to hear about our company's outline.

2. This morning, we would like to give you description of our company and products.

3. Mr. and Mrs. Park, would you



please look through the pamphlets?

4. Ladies and gentlemen, would you please look through the guidebook in front of you? It will give you complete business details.

5. Let me show you the organizational chart of the company.

6. May I show you the catalogs introducing our products?

7. After lunch, we will continue to give you a more detailed description of our products.

위 예문을 기준으로 함께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Case 1)

A: 여러분, 저희 제품과 서비스에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점심식사 후 계속해서 저희 제품에 대한 보다 더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까?

B: 점심식사 하러 가기 전에 질문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A: 물론이죠, 질문 해 보세요.

A possible translation)

A: Ladies and gentlemen, I hope you will be quite satisfied with our products and services. Now, after lunch, we will continue to give you a more detailed description of our products.

B: Before we break for a lunch, may I ask you a question?

A: Of course. Go ahead, sir.

Case 2)

A: 지난 분기의 판매 수치를 보여 주실 수 있나요?

B: 죄송합니다만, 그건 기밀 (비밀) 사항입니다. 하지만, 제가 리가르도 씨께가 능여부를 여쭙 보겠습니다.

A possible translation)

A: Would you mind showing us the sales figures for last quarter?

B: I am sorry, sir, that's a confidential. However, let me ask Mr. Regardo if he will make an exception.

■ 카투사 기고문

자동차의 전통을 이어가는 세단

자동차 엔진은 여러 개의 실린더가 모여서 이루어져 있는데, 엔진에 있는 실린더의 개수를 보고 그 자동차의 엔진이 4실린더면, 4기통, 6실린더면 6기통 이런 식으로 엔진의 형식을 나타낸다. 최초의 자동차인 벤츠 1호차의 경우 1기통이지만, 현재는 최소 3기통부터 12, 16기통까지 다양한 크기의 엔진을 단 차들이 나와 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실린더를 다는 것은 자동차 엔진의 경우 4단계를 거쳐서 연료가 폭발하여 바퀴를 굴리게 되는데, 연료를 연소시키는 실린더가 하나만 있는 것보다 여러 개 있어서 연속적으로 연료를 폭발시킬 경우 바퀴 회전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자동차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엔진크기를 키우다보면 실린더가 너무 커져서 효율이 떨어지는데, 작은 실린더를 여러 개 사용하여 엔진을 만들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비슷한 크기의 실린더는 양산하기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다.

보통 국산차의 경우 3기통 마티즈부터 보통의 4기통 승용차, 그리고 그랜저, 에쿠스 급의 6기통, 8기통이 있는데, 수입



제공사진

롤스로이스 팬텀의 대시 보드.

차의 경우 현재 양산차 중 최고급이라고 할 수 있는 12기통 모델도 나와있다. 물론 그보다 더 큰 16기통 18기통 모델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승용차의 경우 12기통은 최고의 기술을 적용한 최고급 모델임을 드러내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 양산차의 경우 12기통을 쓰는 모델이 많지 않지만, 독일 자동차 회사 간의 출력 경쟁으로 요즘은-환경, 에너지 문제에도 불구하고-더 많아졌다.

12기통 엔진의 역사를 살펴보면 1907년에 최초의 실험용 12기통 엔진을 만든 후, 1차대전 때 항공기 엔진으로 12기통 엔진이 생산되었고, 1915년 미국의 패커드 트윈 식스가 최초의 12기통 엔진 자동차로 등장한다. 1929년 마이바흐 DS7, 31년 DS8이 12기통 엔진을 얹고 등장했다. 1930년 캐딜락은 V16, V12 모델을 내놓았다. 이후 미국의 오번, 링컨, 피어스 애로우, 패커드, 영국의 롤스로이스, 라곤다, 프랑스의 들라이에 보아장, 스페인의 이스파노 수이자 등에서 12기통 엔진을 얹은 고급차들이 나온다. 2차 대전 때는 전투기 엔진으로 사용었고, 전후 페라리가 1947년(V12 1.5, 100마력)와 람보르기니

가 1963년에(V12 3.5, 360마력) V형 12기통 엔진의 스포츠 카를 내놓는다. 1971년에 재규어가 V12 5.3리터 엔진을 승용차에 얹기 시작했다. BMW는 88년에 750iL에 최초의 12기통 엔진을 얹었으며(V12 5.0, 296마력), 벤츠는 92년에 600SEL에 12기통을 얹기 시작했다.(V12 6.0, 389마력), 2003년 폴크스바겐이 W12 기통을 얹은 패이튼을 시판하여 12기통 엔진을 생산하는 메이커가 되었다.

세계 고급차를 주도하는 독일 자동차의 경우 주요 회사인 벤츠, BMW, 아우디 모두 12기통 세단을 갖추고 있다. 물론 이 모델은 각 회사의 기함(flag ship)이다. 벤츠는 S600과 마이바흐(V12 5.5 바이터보, 500마력)가 있고, BMW는 760Li(V12 6.0, 445마력), 아우디는 A8 6.0(W12 6.0, 450마력)이 있다. 그리고 폴크스바겐이 최초의 대형세단 패이튼을 내놓으면서 W12 6.0리터 모델을 내놓았다(아우디와 엔진이 같다). 그리고 BMW가 상표권을 갖고 있는 롤스로이스에서 12기통 엔진을 얹은 팬텀을 내놓았고, 또 일본의 도요타가 2000년 경 자사의 최고급 모델인 센추리에 12기통 모델을 내놓았다(V12 5리터 280마력).

스포츠 카의 경우 페라리와 람보르기니가 12기통 엔진으로 유명하고, 맥라렌 F1도 12기통 슈퍼카로 유명하다.

1. 도요타 센추리

도요타의 기함인 초대형 세단 센추리는 철저히 일본 내수시장만을 위해 그리고 철저히 쇼퍼드리븐(Chauffeur Driven- 운전사가 운전하는 차량) 카를 지향하며 만든 일본 최고의 차로써 1967년 처음 선보인 이래 전통적 스타일을 면면히 유지해온 것으



제공사진

도요타 센추리의 모델.

로 잘 알려져 있다. 수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 핸들용 시장인 영국과 일부 국가 이외에는 자세한 제원과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은 '베일 속의 모델'이다. 센추리에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첨단 장비가 탑재되어 있지만 눈을 복잡하게 만드는 램프나 버튼류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엄청난 값에도 자동차 좌석은 천으로 되어있다. 세계 최고의 럭셔리세단, 롤스로이스를 일본식으로 재해석해 독자적

인 색깔을 지켜온 결과다. 센추리는 관료적이며 보수적 성향의 일본 최상류층을 위해 존재하므로, 철저히 그들의 취향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산 V12엔진, 1,000만엔(1억원, 일본 내수 시장에서 일본차로서는 최고가이다.)이라는 엄청난 가격 이외에도 일본 황실 공식 의전차량으로 쓰이는 도요타 센추리.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를 넘보고 있는 도요타의 기함으로써 일본 최고의 고급차로서 독특한 개성을 지니고 있다.



제공사진

롤스로이스 팬텀의 뒷자석.

2. 롤스로이스 팬텀

1906년 헨리 로이스와 찰스 롤스가 설립한 롤스로이스는 첫차인 실버고스트를 내놓고, 트웬티(Twenty, 1922~1929), 팬텀 I(1925~1929), 팬텀 II(1925~1936)를 내놓으면서 최고급차의 명성을 얻는다. 1931년에 벤틀리를 인수하고, 2차대전 후 1946년 실버 레이스(Silver Wraith), 1949년에 실버 새도우(Silver Dawn), 65년에는 실버 새도우를 내놓는다. 롤스로이스는 항공기 엔진으로도 유명한데, 2차 대전 중 연합군 최고의 전투기라는 평을 듣는 영국의 스피트파이어나 미국의 P-51의 경우 롤스로이스 머린 엔진을 사용하였다. 2차대전 후 롤스로이스의 항공기 엔진 부문은 더욱 발전하여 콩코드 기의 엔진을 생산하기도 하였다. 1969년 록히드 RB211에 엔진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이 사업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고 파산했다. 71년 국영회사로 부활한 후, 73년 자동차 부문은 빅커즈 사에 인수된다. 이 때 쿠페, 컨버터블 모델인 코니시(Corniche)를 내놓고, 85년 실버 스피리트를 내놓는다. 90년대 다시 경영위기를 맞아 98년 폴크스바겐이 롤스로이스의 유형자산을 인수하고, BMW는 롤스로이스 브랜드를 인수하였다. 최근 나온 팬텀은 BMW가 개발한 것으로 BMW의 V12 6.7리터 453마력 엔진을 얹고 있다. 시속 60마일까지 가속하는데 5.7초가 걸린다. 18마리 분의 소가죽을 사용한 호화로운 인테리어를 자랑한다. ■

회계감사와 상병 문제 필



MOVIE

우주 전쟁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주연: 탐 크루즈

레이는 뉴저지에 살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다. 하지만 그의 삶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러던 어느날,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 그에게 일어났다. 지구를 파괴하기 위한 화성인들의 대량 침공이 시작된 것이다. 그가 살던 마을은 파괴자들의 침략으로 온통 쑥대밭으로 변해버렸다. 그와 동시에 레이의 삶에도 큰 파란이 일어난다.



TOP CHARTS

사랑했나봐

윤도현

2. Girls on top/ 보아
3. 여자/Big Mama
4. Hi Ya Ya 여름날 / 동방신기
5. She is/ 클래지콰이
6. 짹따라/ 장윤정
7. 떠나지마/ 신혜성
8. Smile Again/KCM
9. 흠어진 나날들/ 박효신
10. 열을 세어 보아요/ 이승철
11. Passion/ 주얼리
12. Music is my life/ 임정희
13. 살다가/SG Wanna Be

H 하/유/선

여름에 어울리는 여자, 무더운 여름을 한번에 날려버린 주인공, 하유선씨를 만나보았다. 현재 가수로서 활동하고 있는 그녀는 매우 적극적이고 활발한 분위기로 기자의 인터뷰에 응해주었다. 자신이 예전부터 원하던 일을 하게 되어서인지 인터뷰 내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해준 하유선씨는 더욱 빛나보였다.

- 간단히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하유선입니다. 키는 170, 몸무게는 비밀이에요(웃음). 지금 가수로서 활동 하고 있습니다. 취미는 독서와 영화감상입니다.

- 가수로 데뷔하신 소감과 각오 및 목표

제가 계속 원하던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뻐요. 제가 원했던 일이었던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할 것입니다. 정상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최근 근황

요즘 많이 바쁘답니다. 여기저기 행사에 참여해서 사회도 보고 공연도 합니다. 오락 프로그램과 음악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다 보니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지만 또 그만큼 기쁘답니다.

- 앨범을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점, 재밌었던 에피소드

아무래도 처음이니까 앨범을 준비하는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또 직접해보니 쉬운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격려해주셔서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재밌었던 에피소드는 아니지만 녹음을 하는데 갑자기 정전이 되어서 깜작 놀랐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오싹하기도 했답니다.

- 요즘 대학 축제 등 행사지에서 맹활약을 하시는데 공연을 통해 느낀 점은?

카메라 앞에서 공연하는 것 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직접 열기를 느낄 수도 있고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공연을 하니 신나고 즐겁죠.

- 이상형에 대해 말씀하신다면?

제가 키가 좀 큰 편이라서 키 큰 남자가 좋습니다. 어깨가 넓고 또 그 만큼 마음도 넓은 남자가 좋습니다.

- 카투사에 대한 이미지는?

제 친구가 카투사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덕분에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카투사 분들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군인들과는 다른 분위기도 있고요.

- 만약 남자 친구가 군인이라면?

매일 맛있는 것들을 가지고 면회를 가고 싶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면 전역 때까지 기꺼이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요?

- 카투사들에게 한마디

이렇게 지면상에서나마 만나 뵈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저도 열심히 노력 할 테니 많이 사랑해주세요.

